

메시지 3 믿음을 지킴

성경: 딤후 4:7하, 딤편 1:19, 3:9, 4:1, 6:12, 살전 3:2, 유 3

I. 신약에서 믿음은 객관적이며 또한 주관적이다.

- A. 객관적인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, 곧 우리가 믿는 것들을 가리킨다. 이 객관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— 엡 4:13, 딤후 4:7하.
 - 1.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‘믿음’은 믿는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믿음이다.
 - 2. 객관적인 믿음의 항목들은 다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항목들, 다시 말하자면, 다만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에 관련된 그러한 항목들이다 — 요 3:16, 1:18, 요일 4:9.
- B. 주관적인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와 관련된다 — 요 3:15-16.
 - 1. 이 의미에 따르면,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곧 주님을 믿는 것이다.
 - 2.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갖는 것에서 하나이다.
- C.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믿음은 5절과 6절과 10절에서처럼 성도들이 믿는 것을 가리키는 주관적인 믿음일 뿐 아니라, 디모데전서 3장 9절과 4장 1절,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처럼 우리가 믿는 대상을 가리키는 객관적인 믿음이기도 하다.
 - 1. 믿음의 이 두 방면은 서로 관련된다.
 - 2. 우리가 믿는 것(주관적인 믿음)은 우리가 믿는 것들(객관적인 믿음)에서 나오고, 우리가 믿는 것들 안에 있다.

II. “믿음을 지켰습니다.” — 딤후 4:7하.

- A. 여기서 ‘믿음’은 객관적인 믿음이다.
- B. 이 절에서 ‘믿음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, 곧 그분의 인격과 구속의 일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함축한다 — 딤편 1:19, 갈 1:23.
- C.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전체를 지키는 것이다. 이 믿음은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믿음이다 — 딤편 1:4.

III. 디모데전서 6장 12절 상반절은 “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.”라고 말한다.

- A.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해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.
- B.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완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— 엡 1:9-10, 딤편 1:4.
- C. 다른 가르침들 때문에 교회는 이미 하락했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— 딤편 1:3.
- D.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에 맞서 싸우라고 명령했는데, 이러한 싸움이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— 딤편 6:12상.

IV.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“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. 그대는 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으며”라고 말한다.

- A.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,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신뢰하지 말고, 영원한 생명이자 신성한 생명인 이 생명을 붙잡아야 한다 — 딤편 6:12하.

- B.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음으로써 객관적으로뿐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운다 — 딤편 6:12하.
- C.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한다.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것이다 — 딤편 6:12.

V.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신성한 풍성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다 — 딤편 1:19, 3:9, 4:1, 6:12, 딤편 1:4, 유 3.

- A.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는 문제, 즉 믿음의 영역과 요소 안에서 시작되고 발전되는 문제이다 — 딤편 1:4.
- B.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이다. 하나님의 경륜은 타고난 영역이나 율법의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,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창조물의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— 고후 5:17, 갈 3:23-26.
- C. 믿음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아들이 되어,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함으로 그분을 표현한다 — 요 1:12-13.
 - 1. 믿음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몸의 지체들이 되어, 그리스도를 표현하도록 그분의 온 존재에 동참한다 — 롬 12:4-5.
 - 2.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수행되고,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다.

VI. 우리는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한다 — 딤편 3:9.

- A.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들, 곧 복음을 구성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— 롬 1:1, 3-4.
- B. 믿음의 비밀은 주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이다 — 골 2:2, 엡 3:4.
- C.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순수한 양심, 곧 혼합된 것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된 양심을 가져야 한다 — 딤편 3:9, 1:19.

VII. 유다는 그의 서신서에서 “성도들에게 한 번 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도록,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.”라고 말한다 — 유 3하.

- A. 이 절에서 ‘믿음’은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믿음이다.
- B. 여기서 ‘믿음’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믿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, 우리의 믿음 곧 우리가 믿는 대상을 가리킨다.
- C. 유다서 3절에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인 신약의 내용들을 의미한다. 우리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을 위해 이 내용들을 믿는다 — 행 6:7, 딤편 1:19, 3:9, 4:1, 5:8, 6:10, 21, 딤편 후 3:8, 4:7, 딤편 1:13.
- D. 어떤 교리가 아닌 이 믿음이 성도들에게 한 번 만에 영원히 전달되었다.
- E. 이 믿음을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한다 — 딤편 6:12.

VIII. 우리는 모두 ‘믿음에서의 하나에 이르러야’ 한다 — 엡 4:13상.

- A. 이 문구에 언급된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이다.
- B. 믿음에서의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아는 것에 달려 있다 — 엡 4:13.
- C.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에만, 우리는 믿음에서의 하나에 이를 수 있다.